

러시아 혁명기 패션 디자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이혜주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I. 서론

러시아 패션 디자인은 전 세계의 찬양과 비판을 동시에 받았던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사회적 변혁의 시기와 더불어 발전되었다. 이 시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은 이후 세계적으로 전개된 모더니즘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적인 미래 구현』이라는 혁명의 정신은 그 이전부터 배양되었던 전위미술의 급진적 발전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전위미술의 진보적 표현양식은 러시아 패션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당시 패션 디자인은 오늘날 『패션디자인』에서 요구되고 있는 「창의성과 실용성의 통합」, 그리고 「의상 스타일과 텍스타일의 통합」을 전위적 실험정신을 통하여 실행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러시아 패션 디자인의 통합적 개념을 재조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적 고찰로서 사회 문화환경에 의한 발전배경 및 과정을 통해 조형적특징을 접근하고자 한다.

II. 사회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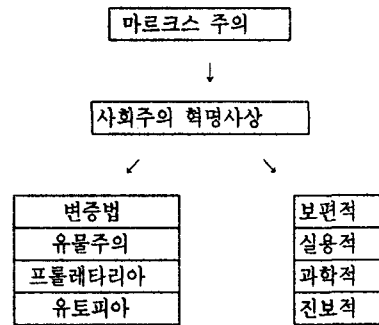
강력한 황제의 권력으로 절대주의 통일을 실현했던 러시아는 19세기가 시작되면서 소외된 도시 지식계층과 빈곤한 농민의 불만이 팽배하였다. 이러한 불안한 국내 사정의 해결책으로 대외적 모험 정책을 시도하는 한편 사회 개혁 운동은 러시아 산업의 근대화와 자본주의 발전에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이후 경제적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던 프롤레타리아는 신분상 농노에서 해방되었지만 중산계급을 향한 성장의 실패와 궁핍한 생활때문에 노동자의 조직공장이 활발히 전개되어 노동운동이 확산되었다.

20세기 초의 극심한 경제공황 및 실업자 증가 및 경찰의 탄압은 농민봉기를 더욱 자극하였다. 더욱이 1차 대전 참전으로 국가 체제의 결합이 남김없이 드러났으며, 여기에 궁정의 문란한 부패상은 노동자를 봉기시켰다. 이러한 상황하에 마르크스주의(Maxism)를 주장하였던 레닌(Vladimir Ilich Lenin : 1870-1924)이 귀국을 계기로 무장 봉기를 결행 1917년 11월 소비에트 정권 수립을 선언함으로써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을 성취시켰다.

마르크스 사상은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계급에 초점을 맞추어 예술작품 내용에 이데올로기적 해석을 통합시킴으로써 사회주의의 진보적 문화 예술 창조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예술사를 통하여 삶을 반영하는 본질이 특정한 계급의 이익,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런적으로 증명한 것은 마르크스 미학 뿐이었다. 인간

의 미적 인식이 예술창조 자체보다도 더욱 광범위한 영역이라는 사실부터 출발하는 마르크스의 중심 논제들은 기술디자인, 미학 교육, 인간 환경에 대한 미적 특성으로 부터 스포츠까지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와같은 정치적 전위(Political Avantgarde)와 예술적 전위(Artistic Avantgarde)가 결합되었던 러시아 전위 예술은 의상, 무대디자인, 도자기 및 텍스타일 등 실용예술 분야에서 정신적 주축이 되었고 이에 부합하여 예술적 테크닉이 꾸준히 개발되었다.

혁명사상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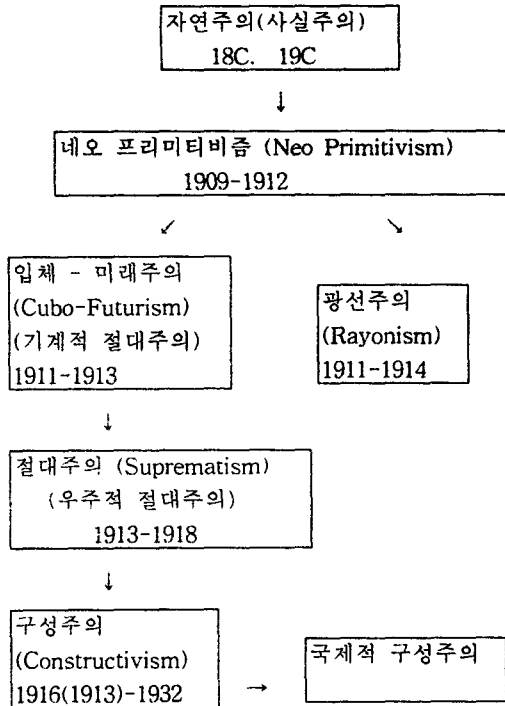
III. 문화적 배경

러시아 패션 디자인은 사회주의 혁명사상과 더불어 전위예술의 진보적 정신과 표현양식의 영향을 받아 발전되었다. 러시아 전위예술은 첫째, 국제 교류를 통해 서구의 후기인상파,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등의 서구의 다양한 진보적 양식을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모더니즘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둘째, 과거 러시아 민중종교 및 예술의 신비성과 불합리적 표현을 재발굴하여 러시아 민간 전승적인 원시주의와 결합하였으며, 셋째, 내국의 혼란했던 정체 사회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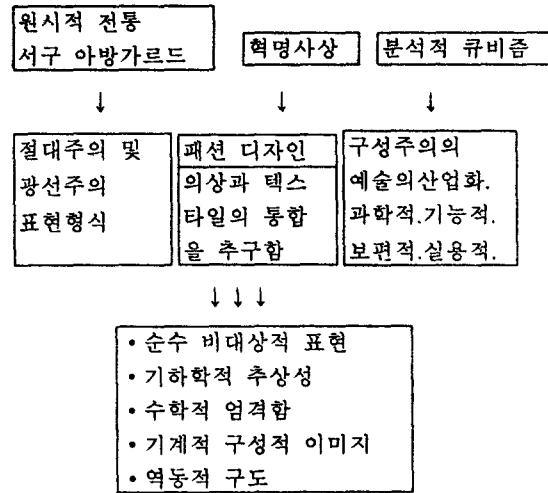
전위예술의 전위적 실험은 1905년의 사회개혁으로부터 파생된 조국의 정치적 정신적 미래에 대한 적극적 관심의 표명과 아울러 자아의 확립, 개성의 주장, 개인 자유의 존중이라는 주관적 욕구가 결합되어 표출되었다고 하겠다.

전위예술의 전개과정과 조형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III-1. 러시아 전위예술의 전개과정



들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를 극소화하기를 원한다. 상인술의 번덕에 따라 변화하고있는 패션계는 이제 단순성을 통해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찾는 의상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이다. 엑스터는 "새로운 직물 패턴에 개발되지 않는 한 새로운 타입의 의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IV. 패션 디자인의 조형적 특징

혁명기 러시아 패션 디자인은 실용적 가능성을 모색하면서도 텍스타일과 의상 스타일과의 관련성을 표명하였던 스테파노바(Varvara Stepanova)와 포포바(Liubov Popova)가 대표적 디자이너이며 그들의 디자인을 「러시아 최초의 패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새로운 시대 상황에 걸맞은 의상 및 텍스타일을 디자인 해야한다는 구성주의의 관점은 예술과 장인 기술자간의 계급구분이 폐지되고 예술이 '생산'이라는 보편적인 개념속에 통합되어 특수 계층 대신 일반대중에게 개방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서 '예술의 산업화'를 촉진시켰던 것이다. 이는 스테파노바의 "새로운 의상은 결코 개인의 취향에 의한 자만적인 순수예술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잘 표현되고 있다. 이 당시 의상디자인에 있어서 논쟁의 초점은 러시아의 특징적인 「국민성」을 표출해야 한다는 점이었으며, 이에 스테파노바는 의사, 혹은 스포츠맨같은 전문직종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였다. 그린(O. Griun)은 공학기술을 적용하는 등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또한 엑스터(Alexandra Exter)는 "현대생활의 리

V. 결론

변혁기의 러시아 패션 디자이너는 현대산업 디자이너로서의 예술, 기술, 생산, 과학의 종합화를 통한 디자이너로서의 기본 역할을 실천적으로 제시하는데 앞장섰다. 즉, 단순한 모방을 지양하고 「디자이너는 동시에 예술가이어야 한다」와 「예술가는 생활을 표현해야 한다」는 논리를 동시에 습득하는 현대 디자인 정신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조형적 특징은 ①절대주의 모티브를 토대로한 기하학적 엄격성과 선명한 구도 ②구성주의 개념인 기능성, 실용성, 보편성 추구하고 수학적, 과학적, 구성적 표현 ③혁명사상의 프롤레타리아를 위한 「예술의 산업화」 및 저렴한 소재의 추구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은 디자인 요소를 무대, 의상, 텍스타일, 영화, 포스터 등 광범위한 영역의 상호교류를 통해 적용함으로써 「예술의 통합」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하겠다.